

지역 매 아리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가족 대상 '헤아림' 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센터장 문상용)는 다음달 6일부터 29일까지 치매 어르신 돌봄을 위해 애쓰는 가족 1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프로그램인 '헤아림'을 운영한다.

총 8회기에 걸쳐 주2회로 진행되는 헤아림 교실은 치매에 대한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증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다.

매주 주제별로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정신행동증상과 치매의 위험요인 ▲치매 진단과 치료와 관리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의사소통방법 학습과 응급 ▲남아있는 능력 찾기 ▲가족의 자기 돌보기 순으로 진행되며 치매 어르신과 행복하게 지내는 중요한 기술을 자세히 배운다.

문상용 센터장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해소되어 치매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며 이번 가족교실을 자조모임의 발판으로 삼아 치매환자 가족들 간의 정서와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 한국철도공사

생고을 관광열차 협약 체결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정읍 방문의 해'로 정하고 500만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내장호 수변지역 개발, 구도심재생·시내관광을 위한 조곡천 복원,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스포츠타운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상품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12일 정읍시와 한국철도공사 정읍역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정읍 생고을 관광열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뜻 깊은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본 사업은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시는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KORAIL(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여 정읍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1인당 숙박비 1만원, 30인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도 각각 1인당 1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시는 KTX라는 교통수단을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도권 등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치와 정읍을 알리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정읍역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경제에 더욱 '활기'

정읍시 - 전북도 - 넥스트가스노베이션,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12일 정읍시는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정읍시장, 차주하 전북도 투자금융과장, (주)넥스트가스노베이션 정읍시, 안광영 대표이사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주)넥스트가스노베이션은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2021년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14,491㎡(4,383평) 부지에 17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13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정읍시 경제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주)넥스트가스노베이션은 2018년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본사를 운영 중이며,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장과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품으로는 LPG 액분사 연소시스템 특허를 바탕으로 한 산업용 버너와 버너 응용제품이 있으며, 금번 투자로 공장용 2등과 연구용 2등을 준공하여 제조시설과 연구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LPG 액분사 연소 시스템'은 산업용 노 등에 연료 공급 시, LPG 저장탱크 내부의 액상 연료를 기화 과정 없이 액체 상태 그대로 직접 연소시

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시키면 기존의 기화 방식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료 전환에 따른 시설변경이 필요 없다는 장점 등이 있어 앞으로의 성장에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진섭 시장은 "투자를 결정해주신 (주)넥스트가스노베이션에 감사드린다"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귀농귀촌인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정읍시로 첫 발 내딛어

지원센터 설립 위한 총회 개최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지난 11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새로운 농업 비전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열린 창립총회는 정읍시가 기존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도농복합도시로의 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농업인구의 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이 있었다. 이사장으로는 김찬중(장금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추대됐으며, 이사로는 한관수(새내골영농조합법인) 이사, 허삼권(대화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태환(정읍시귀농귀촌협의회) 회장, 허석영(정읍시귀농귀촌협의회) 지부장이 선임됐다. 이어 김창희, 서수길 정읍시귀농귀촌협의회 지부장이 감사로 선임되어 7인의



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이사회가 구성됐다.

사)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정보수집과 교환, 자료제공, 지도, 상담,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정읍시귀농귀촌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귀농귀촌지원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농업기술센터 문채련 소장은 전북 지역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의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그동안 타시군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우리 정읍시만의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는데 더욱 매진하는데 농업행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마케팅, 스마트팜 유리온실 신축 준공식 개최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대표 임정섭)이 20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팜 유리온실 준공식이 12일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신축 유리온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유리온실은 1.7ha의 유리온실에 양액재배시설을 비롯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으로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에 따라 부안마케팅은 2017년 완공한 1ha를 포함해 총 2.7ha의 스마트팜 유리온실에서 연간 약 1100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22억원의 조수익이 예상된다.

임정섭 대표는 "토마토 선진 재배 기술과 노하우로 최상품의 토마토를 생산해 전국의 대표 토마토 농장으로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제 농업은 환경에 지배받는 농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환경을 지배하는 스마트 영농으로 변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부안마케팅이 선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 하지 않도록"

정읍시, 산불감시원 · 전문예방 진화대 발대식 가저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이달 1일부터 5월 15일 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가졌다.

12일에 있었던 발대식에는 74명의 산불감시원과 49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23명의 인력이 참석했으며, 참여자들은 1년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를 맞아 한건의 산불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유진섭 시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재난사건에 의해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 한 만큼 우리시가 이러한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는 것은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등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봄철 산불 재난 예방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원들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취약지역 인화물질 제거 작업도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시에서는 산불방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읍면동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주요 산불 취약지 산상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와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물 소각 등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봄철 산불 재난 예방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활동에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소방서장, 화재현장 지휘로 피해저감 앞장 서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지난 11일 고창군 아산면 성산리 소재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계사 1동 약 634.49㎡, 550만원 상당의 집기류 100여점 등이 소실되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주요원인은 산소용접 취급 부주의로 발생되었으며 화재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선착대는 화재 상황을 전파하고 주변 양계장으로 연소확대를 저지하는 등 후착대가 도착하기 전 화재진압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화재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응1단계를 발령했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대응단장으로부터 연소상황, 진압대책, 피해상황 등을 보고받아 지휘권 이양과 동시에 화재현장을 지휘하여 연소확대 및 피해저감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양계장 총 7동 중 초기 화재가 발생한 1동만 소실되고 연소확대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한 발 앞선 현장대응을 실천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공사 중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 실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가연성 자재 등 별도보관 ▲소화기 비치의무 등 공사현장 화재 예방 경각심을 일깨웠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선착대가 화재진압 매뉴얼을 준수하고 후착대와 연계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연소확대를 저지하여 피해저감을 위해 노력해준 대원들의 노력이 높이 산다"고 격려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 Wine featuring Mulberry Wine and Sangju. It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describes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the products.